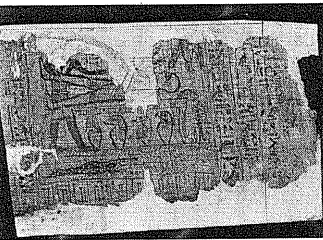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1981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정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히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불신앙의 결과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1

값진 진주 : 독특한 경전제임즈 알 해리스..... 5

태초의 지상의 인간 가족에드워드 제이 브랜트.....13

경전 독서 계획(1981년)18

특별한 백성이 탐구하는 것로드니 터너.....19

복음의 회복에 미친 성경의 역할로버트 제이 매튜스.....26

나무가 재목이 되기까지알란 더블류 패런트.....34

내 친구(터보전)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35

나의 일지레이 메리트.....37

심심풀이40

나의 친구들루스 맥패든 스펙, 패트 호건 그림.....41

요셉 스미스 역42

신구약 전서의 변함없는 복음엘리스 티 라스무센.....43

요셉 스미스의 구약 인물들과의 접촉47

나이제리아와 가나제네트 브리감.....48

실천하라로버트 엘 심슨 장로.....54

지역 지도자 메시지막 병규 광주 스테이크 부장.....58

해외 소식60

지역 소식61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86호, 제17권 제 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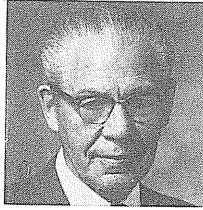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93KOPRINTED IN SEOUL, KOREA 8/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불신앙의 결과



엔 엘든 테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나는 인생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해 나간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고장에서 활동적인 말일성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와드에 속하여, 똑같은 교사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오늘날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다니는 직장만이 아니라 인생 철학과 영적인 면에서도 서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모두 직업적인 면에서와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있는 직분을 맡고 있으며 또한 그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는 생활을 하여 훌륭한 부모와 그들의 교리와 지역 사회에도

움이 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점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비회원과 결혼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나, 그중 두 자녀는 계속해서 과속 운전, 취중 운전, 마약 복용 등으로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비판하거나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이 내게 와서 그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충고를 구하였을 때, 그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러진 상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사도행전 20 : 28—30)

후에 콜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사랑, 믿음,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 : 8)

어째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철학에 미혹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통하여 여러가지 가르침과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열 두 제자와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가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그를 인정하자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20 : 25, 27, 29)

때때로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반론과 불확실성과 반 그리스도 정신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인구 증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와 핍박자와 거짓 예언자는 언제든지 있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파괴시키려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1909년 10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온 때가 없으며, 오늘날보다 환상을 보는 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온 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그들로부터 편지와 명령과 위협과 훈계와 경고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세워 교회를 만든다는 등의 어리석은 생각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자기처럼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는 추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실한 말 일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듯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니다. 해의 왕국 아래의 어떠한 권제에도 그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그의 이해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나 신앙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거짓과 비위의 빛보다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계시의 영,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일시적인 풍조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09년 10월, 8—9페이지)

우리는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을 이해하고, 복음을 지니며,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종관 리 역원과 다른 사람에게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하며 스스로 이 사업이 참되다는 지식을 얻으라는 권고를 받고 있으며, 각 사람은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간증을 지닐 수 있습니다.

1935년 10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도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과학이나 다른 일반 학문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높은 예지가 요구되듯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예지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분야에서의 성취와 달성은 과학 분야에서나 사업과 상업 분야에서나 그 밖의 다른 세속적인 면에서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있고 위대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

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영적인 생활과 종교 행위의 참된 입장과 가치를 격하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단체, 영적인 개념, 그리고 자연 세계를 초월한 이 위대한 영적인 세계로부터 유리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인간의 생각에 깊이 뿌리박은 이 세상적인 철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적인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교육은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도받아 온 영향력이나 교육 제도는 과거의 구제도나 전통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격하시키고 생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과 유리된 채 신앙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조상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늘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기를 호소하면서, 우리 교회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들이 키워 온 전통과 신학과 정신력을 소속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지시키고자 애쓴 모든 훌륭한 종교인들의 주장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물질 만능의 세계, 과학의 세계, 과거 수십년 동안 눈에 띄이게 발전한 모든 과학적인 업적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저하시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기도 쉽습니다. 나는 청소년의 관념을 형성해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공공 학교 교육 제도를 존중하고, 그것이 인류 문화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되며,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늘 생각해 왔으며, 나의 자녀들의 교육도 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세자 또는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항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자녀의 신앙을 깎아 내리거나, 자녀를 신앙 철학에서 이끌어 내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따위의 말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 이끌어 내는 영향력에 예민한 감수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나치게 명령이나 금지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우며 생명을 주는 기쁨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앎을까 하는 두려움에 젖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모든 만족, 모든 참된 기쁨과 삶의 희락은 복음 원리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부속 결과임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대회보고, 1935년 10월, 94—96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마음의 행복이나 화평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주셔서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 : 4—6,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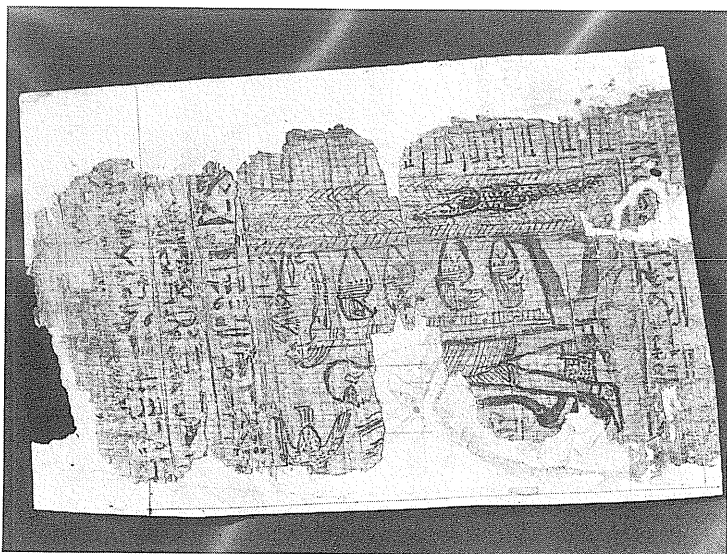
*

값진 진주 : 독특한 경전

제임즈 알 해리스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조교수

ㄱ ㅏ ㅑ ㅓ | ㅕ ㅗ | ㅛ ㅜ



파피루스 원본을 찍은 사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원본에서 아브라함서에 나오는 그림 1을 발견했음.

진위형 문제

여러분은
값진 진주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다음 질문에 대하여
이 가장 작은
표준 경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1. 모세서와 요셉 스미스 1서는 성경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의 일부이다.
2. 모세서의 일부는 성경에서 완전히 없어진 부분이 회복된 것이며, 다른 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개역이다.
3. 아브라함은 족장의 기록의 형식에 따라 기록했다.
4. 아브라함서의 극히 일부만이 출판되었다.
5. 사탄은 모세를 시험하였다.
6. 비밀 결사대는 물몬경의 백성들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7. 위대하고 고귀한 영들이 이 세상의 창조 사업에서 그리스도를 도왔다.
8. 에녹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거절하였다.
9. 이 지상에서 아담의 기억의 책이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10. 복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가르쳐졌으며, 그는 침례를 받았다.
11. 많은 복음 경륜의 시대가 있었으나, 값진 진주에는 일곱 가지의 주요 경륜의 시대가 언급되어 있다. (이상의 모든 질문의 답은 6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맞는다.)

1. 모세서와 요셉 스미스 1서는 성경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의 일부인가?

물론경은 성경에서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갔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니일 13 : 26, 28, 32 참조) 잃어버려진 것이 다시 회복되었는가? (니일 13 : 34 참조) 성경의 내용은 회복되었는가?

1830년 6월, 요셉 스미스와 갓 조직된 교회는 상당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어려운 때에 그들을 강하게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올슨 프랫이 후에 모세의 시현이라고 제목을 붙인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는 결국 교회의 교리상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예언자와 그의 친구들을 시련과 환란 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예언자는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은 말로 계시의 서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공약해 주었고 다음의 귀중한 작은 단편(모세서 1 : 1—42)에 “규례에 규례를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정사, 1 : 98)

이 계시가 주어진 직후에 요셉 스미스는 그후 여러 해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와 기도에 바쳐야 했던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성경의 영감역으로 완수되었다. 모세서는 창세기에 대한 영감역을 발췌한 것이며, 요셉 스미스 1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예언자의 영감역이다. 모세서의 발췌는 예언자의 생전에 준비되어 출판되었다. (제임즈 알 클라크 박사의 연구에 의거

한 도표 참조)

영감역 성경에서의 발췌	최초의 출판 날짜
모세서 1 : 1—42	1844년 1월
모세서 2 : 1—5 : 59	1833년 4월 (미완성)
모세서 6 : 1—42	1832년 8월
모세서 6 : 43—68	1833년 3월
모세서 7 : 1—69	1832년 8월
모세서 8 : 1—30	1833년 4월

2. 모세서는 성경 본문을 개역한 것이거나 회복한 것인가?

모세서를 이루고 있는 여덟 개의 장에는 경전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회복된 자료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소위 예녹의 예언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알려진 것에는 모세서에서 회복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영감역 성경도 포함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기록하기에 앞서 예언자는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어린 양떼들, 곧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미 번역 사업이 시작된 경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줌으로써 그들을 크게 격려하고 힘을 주셨음을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신구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참고된 책에 대하여, 성도들간에는 많은 억측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그 책들이 분실되었다.’는 것이었지만 유다가 에녹의 예언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것처럼, 사도 시대의 교회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주 콜레스빌에서부터 캐나다이쿠아에 이르기까지 약 칠십 명 회원에게 주님께서 에녹의 예언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신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교회 정사, 1 : 131—33)

에녹의 예언은 절정의 때에 교회에 알려졌으나, 그것이 1830년 12월에 회복되기까지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라졌던 것이었다. 이 예언은 교회로 하여금 에녹의 시온의 형태에 따라 시온을 건설하도록 격려해 주는 내용을 말해 주고 있다. 모세서 1장 1—42절의 회복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발전하는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3. 아브라함은 족장의 기록의 형식에 따라 기록했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손에 보존되게 된 “선조, 곧 족장의 기록”에 영감을 받았으며,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에 그 일의 얼마큼을 기록하리라.” (아브라함서 1 : 31)고 설명했다.

4. 아브라함서는 모두 출판되었는가?

현재 아브라함서로 출판된 것은 모두 1842년 3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에 걸

쳐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스(정기간행물)에 실렸다. 1843년 2월께 존 테일러가 요셉 스미스에 이어 편집자가 되었다. 테일러 장로는 구독 신청자들에게 한 말씀에서 이같이 기록하였다. “요셉 형제님은 아브라함서에서 더 많은 것을 발췌하여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일은 성취될 수 없었다.

아브라함서에서 출판되지 못한 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계속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그림 1은 제 1장에 나타난 내용에 선행되는 것으로 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림 2는 아브라함서 3장에 있는 내용에 선행되고 보충해 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림 3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말하기 앞서 나와야 할 것이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서의 잃어버려진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 것인가는 확인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3장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설명이 있다. 아브라함은 친문학의 원리, 전체에서의 존재, 예임 및 친지 창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음 원리를 그가 가르쳤겠는가? 그림 3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왕의 궁정에서 친문의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주님의 지시를 수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여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는가를 앎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5. 사탄은 모세를 시험하려 하였는가?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모세서 1 : 12—23 참조)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이 성경의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모세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 사건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숨겨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요셉 스미스의 성역을 통하여 다시 인간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창세기의 어떠한 장에서나, 모세 오경 어디에서도 “사탄” 또는 “악마”라고 지적된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값진 진주의 모세서 일곱 장에는 그 이름이 32번이나 등장한다. 사탄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담, 가인, 다벳, 에녹 그리고 모세에게는 알려졌던 것 같다. 값진 진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우게 된다.

7. 사탄은 모세의 생애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적대자였다. (모세서 1 : 12—22 참조)

그는 네 차례나 떠나라는 명을 받고 떠났다.

8. 사탄은 상당한 능력을 지닌 인격체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 자들만이 이를 물리칠 수 있다. 모세가 강렬한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는 신앙깊은 모세의 명령도 사탄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였다. (모세서 1 : 19—23 참조)

9.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그의 타

락된 상태에서 머물러, 빛의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간을 속이며, 인간의 모든 선한 사업과 모든 힘을 주고 신앙을 강화시키는 경험을 왜해시키려 노력한다. 아담의 때로부터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성도들과 투쟁을 벌여 왔다. (모세서 4 : 4 ; 8 : 49 ; 교성 76편 참조)

10.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지와 자유의지로써 악의 화신이 된 자였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탄이 거짓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진시켜 주지 못하는 철학, 계획 등을 통하여 그의 거짓 프로그램을 가르쳤다. 위의 본문은 또한 악의 기원을 말해 주고 있다. (모세서 4 : 1—4 참조)

“이 지상의 인간에 관한 한, 악은 전 세계에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되었다. 영원하신 아버지는 영의 자녀를 낳으셨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율법을 성임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러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악을 범할 가능성이 없는 승영을 향해 진보해 나가는 것을 바랄 수 없었다.

“루시퍼와 천군의 삼분의 일은 선보다는 악을 택하였고 의롭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결국 주님을 대항하여 공공연히 모반을 일으켜 지상으로 쫓겨났으며 육신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 (모세서 4 : 1—4 ; 아브라함서 3 : 24—28 ; 교성 29 : 36—40 ; 계 12 : 7—13)” (브르스 알 맥콩키, 물론 교리, [북크래프트사, 1966년], 245페이지)

6. 비밀 결사대는 물론경의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인가?

비밀 결사대는 니파이인과 야벳인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이더 82:1) 그러나 비밀 결사대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훨씬 전인, 야벳인이 서반구를 개척하기 훨씬 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사대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모세서 5장 19절은 가인과 비밀 결사대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11절은 지상에서 결사대가 존속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사대는 “살아 계신 하나님”(모세서 5:29—30)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암흑의 엄숙한 맹약과 권세를 장악하고 폭력과 두려움으로 획득하는 권익에 의존하는 결탁된 형제애로써 특징을 이루고 있다. (모세서 5:51—55)

과거의 위대한 문화는 가인의 결사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그같은 일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모로나이는 말일의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이방인들아,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 너희로 너희 죄를 회개하게 하며, 권세와 사욕을 얻을 뜻으로 세워진 이러한 살인 결사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만일 너희가 이같은 일에 참여할진대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검이 너희를 내려쳐 너희를 휩쓸어 멸망케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너희가 이같은 일들을 볼 때에 너희 중에 있을 이러한 비밀 결사로 너희가 처참한 처지에 놓인 줄을 깨달아 알라 하시었느니라. 또한 이러한 결사 위

에 화 있을진저. 이는 죽음을 당한 자들의 피가 저들이 당한 일을 복수하며, 이러한 결사를 세운 자들을 복수해 줄 것을 흙 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것임이라.” (이더서 8:23—24)

7. 위대하고 고귀한 영들이 이 세상의 창조 사업에서 그리스도를 도왔는가?

아브라함서에는 창조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기록을 현대의 인쇄물로 실고 있다. 이 기록의 서문은 독특하고 즐거운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아브라함서 3:22)을 보여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지들(영이었던 자들을 말함)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이었고, 하늘의 왕이요 여왕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 중에는 “하나님 같은 신 분”이 계시었으며, 그는 이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아브라함서 3:24)

“……태초에 그들이 내려가시니라. 그들 곧 여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직하시며 형성하시니라.” (아브라함서 4:1)

이러한 성구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빌 2:12 참조) 하는 이 지구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8. 에녹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거절하였는가?

에녹을 에워싸고 있던 인간 사회는 격렬함과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암흑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을 구하며 자신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살인을 계획하” (모세서 6:28)였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선교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에녹에게 있어서 선뜻 내키는 일이 못되었던 것 같다.

그는 말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비교적 경험이 많지 않아, “나 어린 자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 (모세서 6:31) 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불평하였다.

에녹의 모든 불평은 주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명한 것을 행하라는 단순한 훈계로써 일축되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그의 입은 말로 채워지고, 그의 모든 말이 성취되어 산과 강과 짐승과 사람들이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게 될 것이었다.

에녹은 주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끝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미래를 보았다. 그의 시현의 절정은 모세서 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주님의 탄생, 성역, 사망 그리고 부활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선전자 에녹의 간략한 역사이다.

에녹은 그의 들리움을 받은 도시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세상과 합하여질 것이며, 세상은 그의 존재를 부인하여 그와 그의 시온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말일에 있게 될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시온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말일성도가 이와 똑같은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9. 이 지상에서 아담의 기억의 책이 가장 오래된 경전인가?

고대 축복사들 중에는 성신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경전의 최초의 저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기록은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할 때 사용한 주요한 원기록들이었다.

“……나는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창세에 이르기까지의 연대기 서술에 힘쓰려 하노라. 이는 그 기록이 내 손에 들어와 지금 현재까지 내가 가지고 있음이니라.

“그러나 신권의 권능에 관한 선조 곧 족장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보존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에 그 일의 열마름을 기록하리라.” (아브라함서 1:28, 31)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배웠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언어가 보전되었더라.

“또한 태초로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권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있으리라.

“아담이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을 하였고……”(모세서 6:5-8)

10. 복음은 최초의 인간(아담)에게 가르쳐졌으며, 그는 침례를 받았는가?

기독교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기 전에 이미 전파되



아브라함에서 복
사한 그림3(값진 진
주 60페이지에 그림
설명 있음)

었다. 하나님께서는 절정의 때까지 인간에게 온전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밝히 시기를 미루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첫번째 인간은 아담이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그의 설교에는 아담의 가르침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녹은 어떻게 하여 아담이 침례를 받았고, 타락과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등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고, 공의의 교리와 성별의 교리를 가르쳤다.

아담의 영적 거듭남이 증명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른 신권을 소유하였다는 것이 선포되었다. (모세서 6 : 51—68 참조)

아담의 침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모세서 6장 64절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영으로 불들려 물 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 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끌어 내심을 받았느니라.”

11. 값진 진주에는 일곱 가지의 주요 경륜의 시대가 나타나 있는가?

이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일곱 주요 경

륜의 시대는 다음과 같다.

ㄱ. 아담의 경륜의 시대—모세서 3, 4, 5, 6장.

ㄴ. 에녹의 경륜의 시대—모세서 6 : 25—8 : 2.

ㄷ. 노아의 경륜의 시대—모세서 8 : 8—30 및 에녹의 시현의 일부.

ㄹ.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아브라함서 전체.

ㅁ. 모세의 경륜의 시대—모세서 1장.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세서 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ㅂ. 절정의 시대의 경륜—요셉 스미스 1서.

ㅅ. 때가 찬 경륜의 시대—요셉 스미스 2서 및 신앙개조.

값진 진주는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경륜의 시대의 통합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작은 책은 인간의 사회와 노력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중재와 그의 몸을 낮추심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특한 사명을 지닌 책이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진리와 제시된 신학의 진일보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태초의 지상의 인간 가족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



아담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
세서 1:34). 미가엘로 알려
짐. (교성 107:54)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
페이지)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
졌느니라.……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대관
장단의 열쇠와 권능을 받았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
166페이지) 창세기 5:3—5:모세서 3:
7; 6:10—12, 67; 아브라함서 1:3;
교리와 성약 84:16; 역대상 1:1; 누
가복음 3:38.

2. 이브—창세기 3:20; 모세서 4:
26, 5:1—2.

3. 셋—69세에 아담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44) 창세기 4:26; 5:6—

11; 모세서 6:3, 13—18; 역대상 1:
1; 누가복음 3:38.

4. 에노스—134세에 아담의 손으로 성
임됨. (교성 107:44) 창세기 4:26; 5:
6—11; 모세서 6:3, 13—18; 역대상
1:1; 누가복음 3:38.

5. 게난—87세에 아담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45) 창세기 5:9—14; 모
세서 6:17—19; 역대상 1:2; 누가복
음 3:37. (게난을 함의 아들 가나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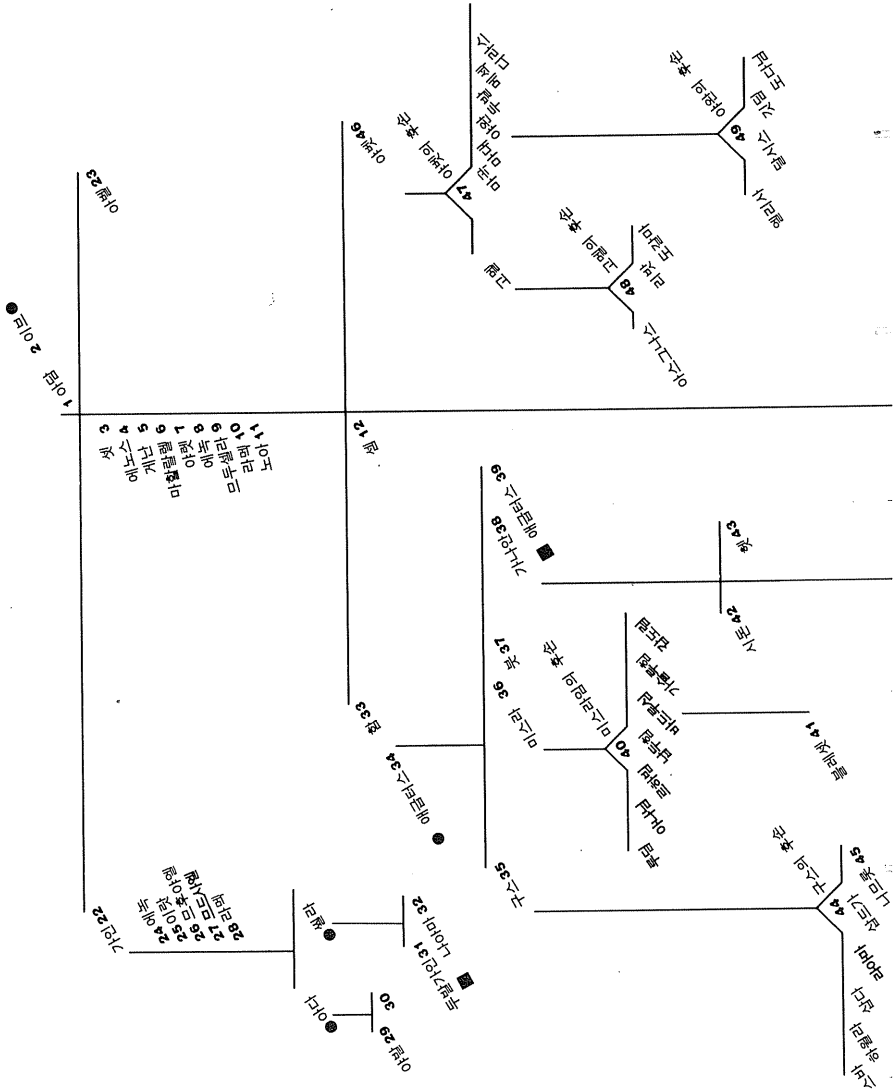
6. 마할랄렐—496세에 아담으로부터 성
임됨. (교성 107:46) 창세기 5:12—
17; 모세서 6:19—20; 역대상 1:2;
누가복음 3:37.

7. 야렛—200세에 아담으로부터 성임

태초의 지상의 인간가족

주: 1번부터 21번까지
(2번 제외)는 직계 족장
및 신권 계통을 나타냄

● 부인
■ 몸



됨. (교성 107 : 47) 창세기 5 : 15—20 ; 모세서 6 : 20—24 ; 역대상 1 : 2 ; 누가복음 3 : 37.

8. 에녹—25세에 아담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 : 48—49) 창세기 5 : 18—24 ; 모세서 6 : 21, 25 ; 7 : 68—69 ; 8 : 1 ; 역대상 1 : 3 ; 누가복음 3 : 37. 그와 그의 성읍이 변형되어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 (이 에녹을 가인의 아들 에녹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9. 므두셀라—100세에 아담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 : 50) 창세기 5 : 21—27 ; 모세서 8 : 2—7 ; 역대상 1 : 3 ; 누가복음 3 : 37.

10. 라멕—32세에 셋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 : 51) 창세기 5 : 25—31 ; 모세서 8 : 5—11 ; 역대상 1 : 3 ; 누가복음 3 : 36.

11. 노아—10세에 므두셀라로부터 성임됨. (교성 107 : 52) 창세기 5 : 28—32 ; 모세서 8 : 8—30 ; 역대상 1 : 4 ; 누가복음 3 : 36.

12. 셈—셈족의 조상. 창세기 5 : 32 ; 10 : 21 ; 11 : 10 ; 모세서 8 : 12, 27 ; 역대상 1 : 4 ; 누가복음 3 : 36.

13. 아르박산—창세기 10 : 22 ; 11 : 10—13 ; 역대상 1 : 17 ; 누가복음 3 : 36.

14. 셸라—창세기 10 : 24 ; 11 : 12—15 ; 역대상 1 : 18 ; 누가복음 3 : 35.

15. 에벨—창세기 10 : 24 ; 11 : 14—17 ; 역대상 1 : 18 ; 누가복음 3 : 35. 유대 전통에 따르면 히브리라는 이름이 에벨에서 파생된 것이라 한다.

16. 벨렉—“……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창 10 : 25 ; 교성 133 : 19—24 참조) 창세기 11 : 16—17 ; 역대상 1 : 19 ; 누가복음 3 : 35.

17. 르우—창세기 11 : 18—21 ; 역대상

1 : 25 ; 누가복음 3 : 35.

18. 스투크—창세기 11 : 20—23 ; 역대상 1 : 26 ; 누가복음 3 : 35.

19. 나홀—창세기 11 : 22—25 ; 역대상 1 : 26 ; 누가복음 3 : 34.

20. 데라—창세기 11 : 24—27 ; 역대상 1 : 26 ; 누가복음 3 : 34.

21. 아브라함—창세기 11 : 26—27 ; 역대상 1 : 27 ; 누가복음 3 : 34.

22. 가인—창세기 4 : 1 ; 모세서 5 : 16.

23. 아벨—창세기 4 : 2 ; 모세서 5 : 17 ; 6 : 2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8—59페이지.

24. 에녹—창세기 4 : 17 ; 모세서 5 : 42. (이 에녹을 야벳의 아들인 의로운 에녹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25. 이랏—창세기 4 : 18 ; 모세서 5 : 43.

26. 므후야엘—창세기 4 : 18 ; 모세서 5 : 43.

27. 므드사엘—창세기 4 : 18 ; 모세서 5 : 43.

28. 라멕—창세기 4 : 18—19 ; 모세서 5 : 43—44.

29. 야발—창세기 4 : 20 ; 모세서 5 : 45.

30. 유발—창세기 4 : 21 ; 모세서 5 : 45.

31. 두발가인—창세기 4 : 22 ; 모세서 5 : 46.

32. 나아마—창세기 4 : 22 ; 모세서 5 : 46.

33. 함—함 족속의 조상. 창세기 5 : 32 ; 모세서 8 : 12 ; 역대상 1 : 4.

34. 애굽터스—아브라함서 1 : 21—23. 이 여인은 함의 아내요 가인의 후손이었다.

35. 구스—창세기 10 : 6 ; 역대상 1 :

8. 전설상으로 구스는 그의 후손에 관하여 “이더오피아”라고 번역되었다.

36. 미스라—창세기 10 : 6 ; 역대상 1 : 8. 이 단어는 애굽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이다.

37. 붓—창세기 10 : 6 ; 역대상 1 : 8.

38. 가나안—창세기 10 : 6 ; 역대상 1 : 8. 가나안의 후손은 가나안인이라고 불리웠으며 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불리워졌다.

39. 애굽터스—아브라함서 1 : 23—26. 이 애굽터스는 함과 애굽터스의 딸이며 애굽의 첫번째 왕인 바로의 어머니였다.

40. 미스라임의 후손—창세기 10 : 13—14 ; 역대상 1 : 11—12.

41. 블레셋—창세기 10 : 14 ; 역대상 1 : 12. 그는 미스라임의 아들 가스루힘의 후손이었으며 그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

42. 시돈—창세기 10 : 15, 19 ; 역대상 1 : 13 (페니키아의 연안 도시가 또한 시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43. 헷—창세기 10 : 15 ; 역대상 1 : 13. 이 사람의 후손이 헷 족속이다.

44. 구스의 후손—창세기 10 : 7—8 ; 역대상 1 : 9—10.

45. 니므롯—창세기 10 : 8—12 ; 역대상 1 : 10. 니므롯은 바빌론에서 특이한 건축가였으며, 전설에 의하면 그가 바벨탑의 건축가였다고 한다.

46. 야벳—창세기 5 : 32 ; 10 : 1—2, 5 ; 모세서 8 : 12, 27 ; 역대상 1 : 4.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리아족 또는 인도—유럽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전상으로는 이방인으로 언급되어 있다.

47. 야벳의 후손—창세기 10 : 2 ; 역대상 1 : 5. 야벳의 아들 마데는 보통 그

의 후손을 언급할 때 메데라고 번역되고 있으며, 야벳의 아들 야완은 이오니아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48. 고멜의 후손—창세기 10 : 3 ; 역대상 1 : 6.

49. 야완의 후손—창세기 10 : 4 ; 역대상 1 : 7. 야완의 아들 깃딤이라는 명칭은 사이프러스 섬과 그 주민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50. 가나안 족속—창세기 10 : 16—18 ; 역대상 1 : 14—16. 이것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이름이다.

51. 엘람—창세기 10 : 22 ; 역대상 1 : 17. 디그리스—유브라테 계곡의 극남쪽 부분이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52. 앗수르—창세기 10 : 22 ; 역대상 1 : 17. 디그리스—유브라테 계곡의 북쪽 부분이 앗수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번역하면 앗시리아이다.

53. 룻—창세기 10 : 22 ; 역대상 1 : 17. 룻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리디아인으로 알려져 있다.

54. 아람—창세기 10 : 22 ; 역대상 1 : 17. 이 이름도 시리아로 번역된다.

55. 아람의 후손—창세기 10 : 23 ; 역대상 1 : 17.

56. 욥단—창세기 10 : 25—30 ; 역대상 1 : 19—23. 이 사람은 벨렉의 아우이며 열 셋의 아들을 거느린 대 가족을 가졌다.

57. 욥단의 후손—창세기 10 : 26—29 ; 역대상 1 : 20—23.

58. 나홀—창세기 11 : 26—27. 나홀의 조부도 나홀이다.

59. 하란—창세기 11 : 26—28 ; 아브라함서 2 : 1—2.

※

1981년 경전 독서 계획

월	경 전
1	창세기 1—2 모세서 2—4 아브라함서 3—5
2	창세기 3—5 모세서 4—6 아브라함서 5 : 15—21
3	창세기 6—17 모세서 7—8 아브라함서 1—2
4	창세기 18—36
5	창세기 37—50 출애굽기 1—12 모세서 1
6	출애굽기 13—20, 24, 31—34 신명기 5
7	출애굽기 21—33, 35—40 레위기 1—15, 17—22
8	레위기 16, 23—27 민수기 1—12
9	민수기 13—26 신명기 1—27
10	신명기 28—34 여호수아 1—24 사사기 1—12
11	사사기 13—21 룻기 전체 사무엘상 1—31 사무엘하 1
12	사무엘하 2—25 시편 1—150

특별한 백성이 탐구하는 것

로드니 터너



이 스라엘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서사시이다. 그 범위는 방대하여 영원에서 시작되어 현세를 통하여 다시 영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지상의 지체를 할당해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명기 32 : 8-9)

인류를 위한 큰 계획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그 계획의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중에서 장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장자인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같이 말하도록 지시받았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출 4 : 22)

이스라엘이 열국의 으뜸이 되듯이 에브라임은 열 두 지파 중에서 으뜸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말일에 있을 집합

에 대한 설명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렘 31 : 9)

주 그리스도,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모두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

아담과 홍수 이전 시대의 축복사들이 영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임에 의심할 바가 없으나, 현세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홍수 이후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이었다. 썸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는 성신권의 위엄과 권세로써 지상에서 통치하도록 예임되었던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아브라함서 3 : 22)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동안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는 육십 이세였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나니 그러므로 나의 손은 너를 덮으리라.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 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이는 ‘곧



네 신권으로’ 하는 일이라)와 후손(곧 신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내가 네게 한 가지 약속을 줄 것임이니 그 약속은 곧 이 권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 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니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아브라함서 2 : 8—11)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새로운 복음 경륜의 시작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한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사가 되고 그의 가족은 “세상의 빛”(마 5 : 14)이요 “소금”(마 5 : 13)이 되어야 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열 두 아들을 낳은 후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함”이란 뜻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말

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구약전서는 특별히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은 셈 족속인 야콥의 가족의 이야기이다. 구약은 낭만과 영광과 명예와 수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 영웅과 악인, 현자와 우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악과 거짓과 추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아브라함은 친 아버지의 살인적인 우상 숭배, 아내의 불임, 가족의 분열, 그리고 그의 영혼을 시험하는 계명 등으로 시련을 받았다. 에서는 야콥을 극심하게 원망하였으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막내 아들의 생명을 염려하였다. 야콥은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서로 시기하는 여러 아내들로 인해 낙담하였으며, 누이 디나의 유혹을 받아온 마을의 남자들을 죽인 아들들로 인해서 불명예스런 모욕을 받았다. 이 사실로 인하여 축복사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창 34 : 30)

그 후에 바로 이 아들들은 그들의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판 후에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보고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야콥은 맏아들 르우벤의 근친 상간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였다.

그 밖의 다른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더불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상으로도 그 가족의 시

작에 연관되어 반대되는 요소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이스라엘의 연극 1막은 요셉의 사망으로 끝났다. 이 사건과 모세의 출현 사이에는 여러 세기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막이 열리면 이스라엘은 물질 양면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중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

신체적인 해방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가 내민 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심이 없는 백성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진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내 불평하였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던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또 다시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시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주신 것도 바로 이때였다. 르비딤에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한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인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 : 6 참조)고 제의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쾌히 승낙하였다.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 19 : 8) 그리하여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모세에게 밝혀 주셨으며, 모세는 다시 백성들로부터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못되어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뎠음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출애굽기 32:1)

백성들이 그들의 구출을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모세의 공로로 여겼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을 때에는, 그가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도 개인이나 그 백성을 자유케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되기 위한, 또는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기 위한 예지나 빛이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순진하여서 그들이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주님은 노하여 그들을 멸하겠다고 위협하셨으나, 모세가 빛나간 백성들을 중재하여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벨기세택 신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잃게 되었다.

말일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여호와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어 그의 면전에 들지 못하게 되었다. 참된 자유와 방편이 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모세 율법, 곧 세속적인 명령의 체제와 교체되었다. 이스라엘은 1400년 동안 다시는 자유롭게 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성경 평론가들은 모세의 율법은 단순히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래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 종들에 의하여 해석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적 및 사회적인 도덕성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특별히 그 율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이 들어 있었다. (1) 광야에서 태어나 교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가 타락한 가나안 족속의 음흉하고 지극히 부도덕한 제사 행위에 유혹받아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 (2)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일된 율법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그 당시의 독특한 사회 여건을 해석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 (3)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육욕적인 본성과 노예 근성을 없애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절정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실 때 그가 그들에게 주시려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율법이 온전하게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율법 탓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무엘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계속 경고하고 탄식하였다. 주님의 자비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내려는 지칠 줄 모르는 모세의 노력도 효력을 거두지 못하였다. 모세는 고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신 29:4)

이 충실한 예언자는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에 그의 백성에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경

고하였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 30 : 19)

모세에 대한 추억은 모세의 권고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충실한 자들도 있었으나, 온갖 악행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솔로몬왕은 실질적이며,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하였으며, 그때까지 어떠한 국가 지도자도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솔로몬이 모세의 십계명의 첫번째 두 계명을 공공연하게 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해를 미쳤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주전 8세기의 바알 숭배는 거의 풍토병적인 것이어서 예언자 엘리야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소 귀에 경읽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의 물질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보다 세련된 우상 숭배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대한 숭배로 증강되었다. 예언자 이사야는 참된 종교가 동반되지 않은 의식적인 제사 의식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 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 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이사야 1 : 11—13, 16—17)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 등과 같은 예언자와 함께 한 백성과 제사장들의 태도, 신앙, 행동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그 민족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



족의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그 시대에 존경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예언자 중의 예언자가 지상에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율법을 주신 이—는 율법을 앞장서서 지키는 자들에게서 배척되었으니, 이는 메시아의 말씀과 행동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결국 유일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신 6:4)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다신주의에 빠져 있던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성약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거짓 신들 앞에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조인 “하나의 주님”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절하지 않으려 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더 높은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 이는 모세의 전통이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훈계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그러나 유대인은 여전히 어린 아이로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과거의 노예 습성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좋은 소식”이 거부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속박 속에서 뒤로 치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르침과 모범을 존중하지 못했으므로, 주전 721년에 열 지파가 분산되었고 주후 70년부터 유대인의 분산이 시작되었다. 분산은 완전하였다. 유대인이 분산된 후에 길고도 어두운 대배도의 밤이 뒤따랐다. 열두 지파의 장자, 에브라임은 이제 그의 동생들을 위하여 온 나라에서부터 집합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벤전 2:9)이 되기에 앞서, 행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으니, 주님은 그처럼 오랜 시기 동안에 그 말을 해야 할 때를 생각해 오셨다. 말일성도가 스스로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관습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신인동형론, 전세에서의 존재, 죽은 자를 위한 사업, 신전 결혼, 지혜의 말씀 등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원리의 대다수가 독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팔레스타인에서와 미대륙에서의 역사—는 일반적인 그들의 교리, 의식 및 종교적인 행사 자체가 특별한 족속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족속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

다. 성경 개역판에서 말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것의 참된 의미를 말해 준다. 특별한 백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백성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모든 다른 나라로부터 뛰어난 뿐만이 아니라 그 뛰어난 점은 그들의 도덕적 및 영적인 우월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위대한 목적을 거듭 강조하였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분명히 현대의 이스라엘은 결실을 맺어 그 결실로써 사람들이 알게 될 때라야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 그러나 전체는 각 부분을 합친 것이다. 시온의 도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함께 모인 곳이다. 모든 말일성도가 대답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가?”가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라는 것이다. 영감역 마태복음 5장 13-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명하노라.” “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명하노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성약된 후손은 인간의 구원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는 택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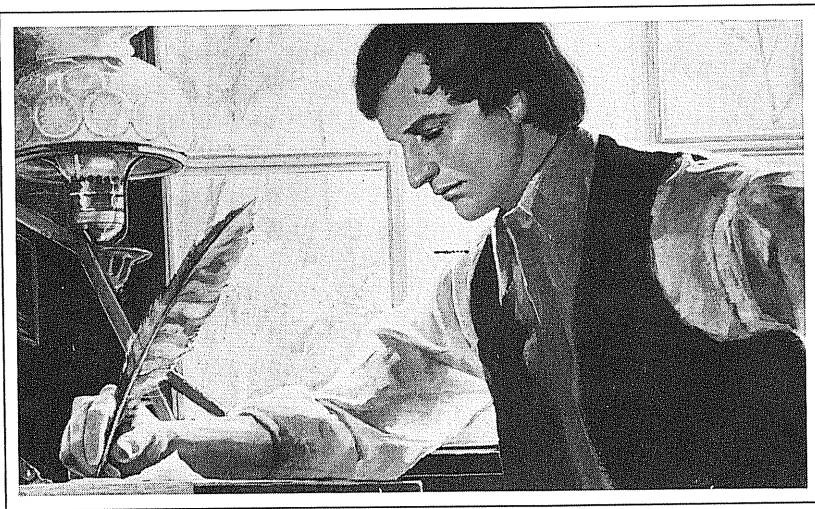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과 구원의 원리를 배우고, 신권의 축복을 받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큰 특권이다. 많은 것이 주어진 만큼,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주님이나 그의 참된 제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날이 이르면, 여호와와는 마침내 그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거룩한 도시”(모세서 7:19)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예언자들에게 의존할 의무가 없어질 것이다. 그가 나라를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드디어 그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되고
주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지며
눈길이 마주치니,
저들이 음성을 높여 한 목소리로
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주께서 또 다시 시온을 일으키셨도다.
주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 이 백성은
선조의 신앙과 성약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셨도다.” (교리와 성약
84: 98-99)

*

복음의 회복에 미친 성경의 역할

로버트 제이 매튜스





노아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고대 예언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여기는 성경을 믿는 교회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기록한 책에 수록된 하나님의 친히 쓰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자주 읽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그 글과 친숙한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글을 쓰신 분의 손길을 볼 것이며,”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56페이지)

물론 요셉 스미스는 성경이 원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신앙개조 8조)는다. 여기에서 사용된 “번역된”이라는 말은 “전달”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류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의 경우에서도, 한 원본에서 다른 원본으로 본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잘

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중요한 항목이 빠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곳이 생기게 된다.

요셉 스미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하였다. “나는 원 저자들의 손에서 직접 기록된 성경만을 믿습니다. 무지한 번역자, 부주의한 서기 또는 고의적이고 부패한 성직자들이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2페이지)

물론경은 성경이 유대인의 기록임을 말해 주고,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언자가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는 것과, 원래는 이해하기 쉬운 기록이었다는 점과, 여러 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많은 간절하고 진귀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물론경은 또한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기록하고 있다. 사실, “간절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늘의 시현을 통하여, 곧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으

로 인하여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분명히, 회복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성경이 회복 사업에서 독특하고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별히 복음의 기본적인 여러 교리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성경과 첫번째 시헌

회복의 이야기 자체는 성경을 참조한 것에서 시작된다.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때의 이 클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드디어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1—13)

요셉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으니, 그는 아버지과 아들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하였던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 중에서 첫번째 시헌은 요셉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개체이며, 그들은 인간과 같은 형상을 지니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당시 지상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회복된 복음의 이와 같은 기본되는 원리는 모두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과 첫번째 시헌을 통하여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과 모로나이 천사

첫번째 시헌이 있는 지 3년 후에 예언자는 여러 차례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모로나이의 메시지의 중심되는 주제는 물론경의 출현이었으나, 모로나이는 또한 성경에서 많은 성구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말일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서 젊은 예언자를 훈련시키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로나이가 인용한 몇 가지 인용문은 말라기 3장과 4장, 이사야 11장,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요엘 2장에서였다. 예언자는 명시하였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또한 모로나이가 많은 다른 성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고 말하였다. (요셉 스미스 2서 : 36—41 참조) 예언자의 설명에서는 그러한 “다른 성구”들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것을 주제로 하여 일련의 편지를 썼으며, 1835년 2월부터 4월까지 말일성도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지에는 모로나이 천사가 어린 예언자를 가르친 주요 목적은 말일의 사업을 준비하는 그의 부름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모로나이는 구약전서를 많이 이용하여 지시하였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가르칠 때 인용하여 설명한 성구는 시편 100, 107, 144편, 이사야 1, 2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이었다고 말하였다. (말일성도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제1권, 제7호, 1835년 4월, 109—112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그 자신의 설명에서 모로나이가 흠정역 성경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성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요셉 스미스 2서 : 36—39 참조)

첫번째 시헌과 모로나이의 가르침은 그와 같이 요셉 스미스의 성경에 대한 이해력을 크게 넓혀 주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씌어진 책이기는 하지만, 그는 또한 어떤 부분의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성경과 물몬경의 번역

물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언자는 우선 문장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오직 영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통하여서만이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노력과 사색이 번역자에게 요구되었다.

경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물몬경을 번역하는 데서 흥정역 성경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 문이라는 것도 부분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



에녹



성경은 물몬경에 수록된 내용의 출처가 되지는 않았으나, 성경의 문체가 물몬경의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물몬경에 들어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언어나 문체상에서 흥정역 성경과 비슷한 것은 복음 회부의 과정에 성경이 미친 영향 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성경과 교리와 성약

성경이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에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42 : 12) 그러나 성경에 대한 암시와 참조가 많이 있고, 교리와 성약의 많은 내용이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요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에 대한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언제 시작되고, 언제 그치며, 누가 기록하고, 어떻게 출판하는가에 대한 지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성경 본문의 일부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76, 77, 86, 91, 132편과 같이 번역을 하는 경험에서 나온 계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절들은 그 주제가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독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의 앞에 나오는 몇 편(3, 5, 8, 9, 10, 17편)이 물몬경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뒤에 나오는 계시들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 —35, 37, 41, 42, 45, 47, 73, 74, 93, 94, 104, 124편의 일부와 76, 77, 86, 91편 전부.

교리와 성약에서도 성경의 어법이 많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133편은 이사야 63, 64장과 내용과 용어에 있어

서 매우 흡사하다. 교리와 성약과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경전이 서로를 지지하고 보충하며 주제와 어법에 있어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사실,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강력하게 증언해 준다.



엘리아

모세

성경과 값진 진주

값진 진주의 두 가지 주요 부분—모세서와 마태복음 24장—은 실제로 요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에서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아래에서 토론됨) 그러므로 표준 경전의 이 부분도 역시 성경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새 번역과 교리상의 발전

예언자가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던 초기에 주님은 그에게 성경을 개역, 또는 그가 말하듯이, “번역”하라고 지시하셨다. 이것은 성경 용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고대의 원본이나 성경 학자들의 일반적인 절차나 방편을 활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번역이 아니라, 요셉 스미스가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판별하는 번역이었다. 이것이 현재 요셉 스미스역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주요 목적은 예언자의 노력의 결과로 그에게 영적인 이해가 임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그에게 교리와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예언자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며, 주께서 교리와 성약 45편 60—62절에서 주신 번역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장에 관하여는 신약 성경이 번역되기까지는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니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 밝히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하여 지금 이를 번역하게 하며 이로써 점차 닦쳐울 일에 대비하게 하노라.

“진리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큰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언자의 성경 번역은 그가 받은 계시와 지식을 근거로 하여 문장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직 예언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었다. 간결하고 긴귀한 것들은 회복되어야 했다. 이러한 개념은 흔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성경에 대한 예언자의 사업에 중요성과 위엄을 더해 주며, 성경 번역과 이 경륜의 시대에 행하여지는 복음 교리의 회복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다음의 주제는 예언자가 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그에게 계시되었던 회복된 복음의 기본 요소이다.

모세의 시현 : 예언자가 성경 번역을 시작한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830년 6월에 받은 “모세의 시현”에 관한 계시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값진 진주, 모세서 1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장의 교리적, 철학적, 역사적인 내용의 중요성은 이것이 모세와 사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말해 주고 있으므로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계시는 모세가 주님의 창조에 놀라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는 숭고한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비옵나니, 어찌하여 이 일들이 이러하오며 당신은 무엇으로 이를 만드셨나이까?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독생자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사명을 설명하였고, 주님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30—39)이라고 지적하셨다.

이것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창세기의 앞에 나오는 장들은 “어떻게”를 말해 주고 있다. 이 계시는 창세기의 서문이며, 이것이 없이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아담 : 아담은 말일성도의 신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담에 대한 특별한 내용, 그의 직계 가족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개가 예언자의 창세기 번역에 나와 있다. 이것은 현재 값진 진주, 모세서 3—7장과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다. 아담의 충실한 희생 번제, 근면하게 자녀를 가르침, 그의 순수한 언어, 그의 침례, 그 밖의 중요한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요셉 스미스역 성경에 나타나 있다.

가인과 사탄 : 하나님과 초기 역사의 의로운 축복사에 관하여 위대한 것들만 예언자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번역은 가인의 모반, 사탄과 맺은 그의 비밀 맹서, 그리고 아담의 많은 자녀에 대하여도 알려 주고 있다. 가인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모세서 5장과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창세기 첫 부분에 대한 예언자의 번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다.

시온과 에녹 : 축복사 에녹이 지은 고대 성읍으로서의 시온과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완성되어야 하는 주님의 사업의 하나로써의 시온의 개념은 교회의 신학의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한다. 에녹과 그의 성읍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대부분은 예언자가 1830년 11월에서 12월까지 창세기 첫 부분을 번역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이다. 이것은 현재 모세서 6, 7장과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6, 7장에 나와 있다. 1830년 11월과 12월에 받은 에녹과 그의 성읍에 관한 이 내용은 1831년 2월부터 8월까지 받은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는 시온에 관한 보다 상세한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교성 42—59편 참조)

어린이의 책임 연령 :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잘 알려진 교리의 하나는 8세에 이르기 전까지의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견책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경은 어린 아이는 주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몇 살

부터 책임을 지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책임 연령이 8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교리와 성약 68편 25, 27절(1831년 11월)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하여 대부분 이 성구가 참조되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가 번역한 창세기 17장 11절(1831년 2월부터 1831년 4월 5일 사이)에서도 역시 책임 연령이 8세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 상황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것이며,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흠정역

창세기 17:7—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17:11—내가 너와 함께 할례의 성약을 세우고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자녀들이 팔 세에 이르기 전에는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영원히 알지니라.”

할례와 칙례 사이의 관계는 설명되지 않았으나, 예언자의 번역은 책임 연령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성경의 이 특별한 성구에 대한 예언자의 기록에 나타난 날짜는 책임 연령이 8세라는 것이 적어도 1831년 4월 5일 또는 교리와 성약 68편으로 된 계시에 언급되었던 것보다 적어도 5개월 전에 이미 예언자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교리는 분명히 예언자가 창세기 17장을

번역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성경이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말해 주는 또 다른 예가 된다.

영광의 세 등급: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게 주어진 또 다른 잘 알려진 계시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의 인류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비록 영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해도, 영광의 세 등급에 대한 시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시현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교리와 성약 76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성경 번역에 몰두하고 있을 때, 1832년 2월 16일에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현을 기록하고 있다. 형제들은 요한복음 5장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그때에 하늘의 시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교리와 성약 76편 15—19절에 주어진 사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번역 사업을 하는 동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자에 관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록되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위에 빛났더라.”

그 뒤를 이어 나오는 계시는 교회 회

원에 의하여 가장 자주 토론되는 주제이며, 이 말일의 경륜의 위대한 시현의 하나로 꼽힌다. 사실 이것은 교회 책자에서 자주 “시현”으로 명시되고 있다. 예언자는 이것을 “영원한 세계의 기록에서 나온 사본”이라고 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페이지) 이 계시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예언자의 성경 번역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에 대한 해의 왕국의 반차: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회복된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한 교리이다. 이 주제가 교리와 성약 132편으로 편집되기 여러 해 전에 예언자 요셉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초기의 몇몇 형제들은 일찌기 1831 또는 1832년에 예언자가 이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간증하였다. 그 때는 예언자가 창세기를 번역하던 때와 같은 시기였고, 결혼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절은 예언자가 주님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한 계시는 요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계시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는 요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복음에서 책 임 연령, 시온 건설, 복음 계획에서의 아담의 역할, 영광의 단계 그리고 해의 왕국의 결혼의 교리 등 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성경 번역 사업에 관련하여 예언자에게 계시되었던

것 같다. 예언자가 고대 축복사, 고대의 평의회와 교회 조직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의 대부분과 그 밖의 다른 주제들이 이 사업과 연관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예언자의 사업의 참된 결실은 요셉 스미스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본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성경 사업의 결과로 그에게 온(또한 그에게서 교회로 온) 많은 계시와 영적인 경험도 있다. 요셉 스미스역 사본이나 그 밖의 계시는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는 대다수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신권, 부활, 전세, 등등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백하게 많이 알게 해주며, 예수, 아담, 에녹, 벨기세텍,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그리고 침례 요한 등의 성역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준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계시가 없이는 성경의 기록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은 복음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거룩한 책에 수록된 하나님의 친히 쓰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자주 읽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그 글과 친숙한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글을 쓰신 분의 손길을 볼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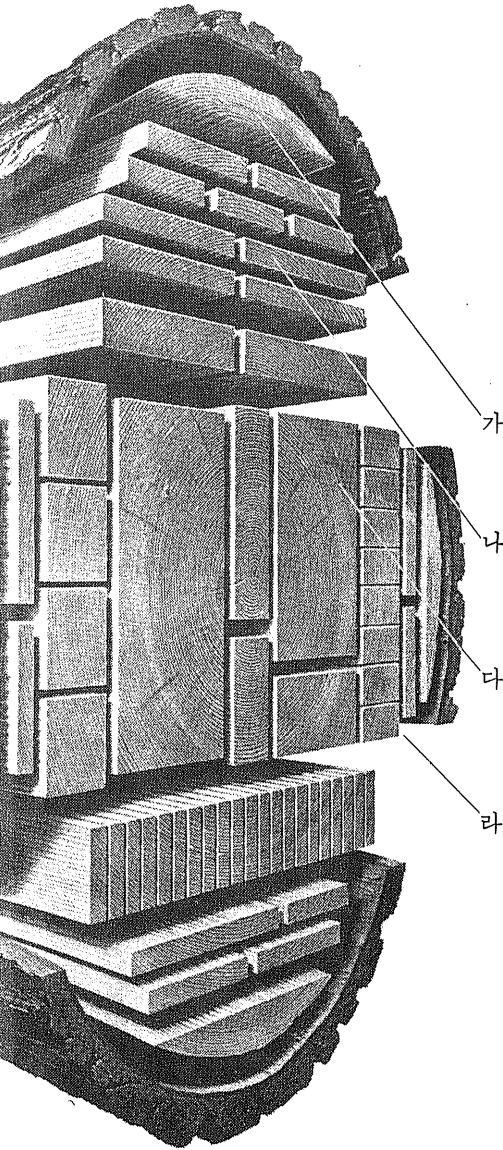
사실,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강력하게 증언해 준다.

로버트 제이 매튜스·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부교수, 교회 협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



나무가 재목이 되기까지

알란 더블류 패런트



통 나무가 재목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림 참조)

가. 우선 나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나무 껍질은 재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연료나 토양을 덮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이 부분을 평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되도록 작게 잘라서 가능한 한 유용한 재목을 많이 얻게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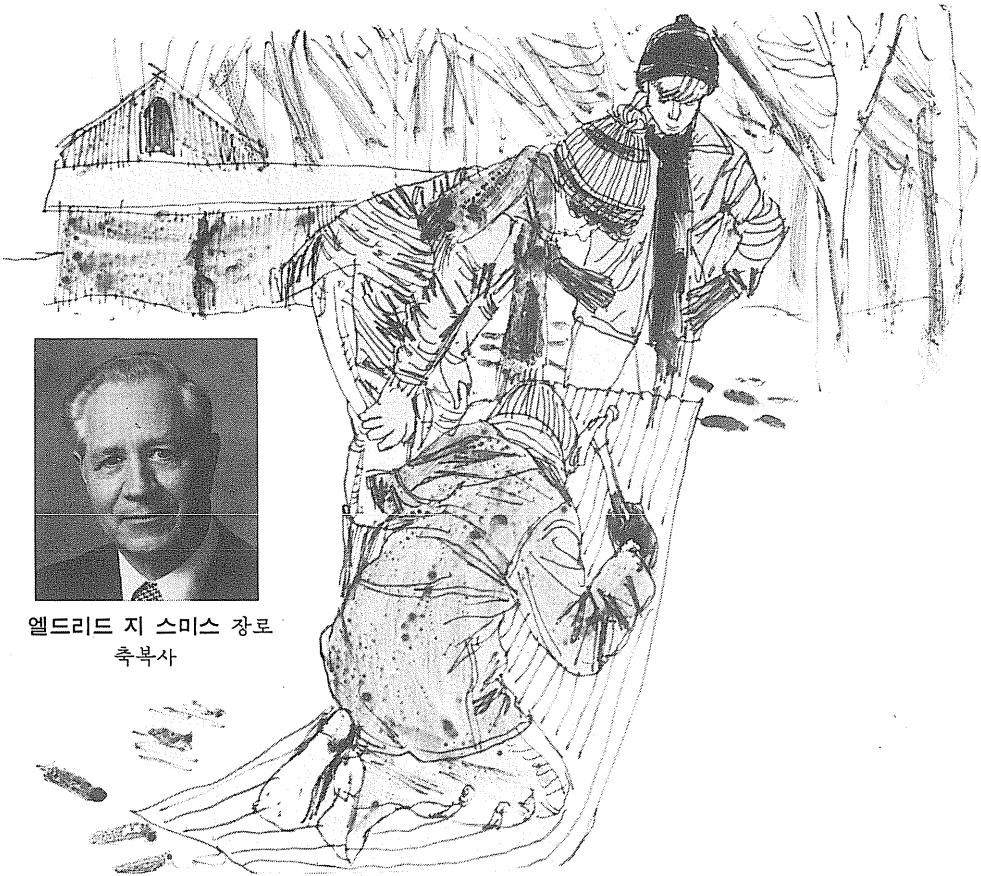
다. 통나무의 이 부분에는 마디가 거의 없으므로, 여기에서 나온 판은 일반적으로 깨끗한 재목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판들은 2.5 내지 7.5센티미터의 두께로 자르게 됩니다.

라. 나무의 중앙 부분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용 재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중한 골격을 바쳐주는 지주, 대들보 등의 거칠고 무거운 단단한 재목은 이 부분의 재목을 켜서 사용합니다. 각 마디는 나뭇가지가 자란 곳—나뭇가지가 난 곳—을 말해 주며, 그것은 나무 중앙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그곳이 나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에 잘려진 나뭇가지의 마디는 나무가 성장하면 쉽게 가려집니다. 인간의 지문과 같이 모든 나무도 각기 나름대로의 표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나무판의 나무결은 다른 나무의 나무결과 다릅니다. 그것은 마디와도 어울립니다.

*



터보전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축복사

터보전(바닥이 평평한 썰매를 타는 놀이) 놀이는 내가 어린 시절에 즐기던 놀이였습니다. 우리 집 위의 언덕은 이 놀이를 하기에 안성마춤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터보전이 크지 않아서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 살정도였던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나에게 언덕 위에 폐허가 된 오두막집에 함께 가자고 청하였습니다. 오두막집의 벽은 골함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풍에도 덜컹거릴 정도로 허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끝을 꺾어 올리면 기가 막힌 터보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학교가 끝나자 급히 집으로 달려가 망치를 찾았습니다. 내가 겨우 찾아낸 것은 아버지의 치과 실험용 기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나는 아버지의 망치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왔으며 낮은 짙었습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그곳에서 오래 머물게 되었고, 터보전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너무 어두워 길이 안 보이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덕 위에는 길이 없었으며 눈은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우리는 눈 위로 뛰며 텅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손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시렸습니다. 갑자기 나는 아버지의 망치가 손에서 빠져 나가 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기 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가 해서 멈추었으나 곧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는 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망치를 찾아보았으나 눈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두워졌으며 쌓인 눈 위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망치를 가져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망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눈 위에 앉아 있으려니 슬프고 춥고 외로워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는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일어나려고 손으로 깊이 쌓인 눈을 짚었을 때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가 손에 집혔습니다. 나는 그 물건을 짚 쥐고는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망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일어서서 벌써 앞서 간 친구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닿았을 때 나는 그날 특별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의 일지

4월 18일

엄마는 내게 이 일기책을 주시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읽는 것을 참으로 좋아한다. 그러나 일기에 적을 만큼 재미있는 일이 내게도 있을지 모르겠다.

5월 21일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빵을 구워 놓겠다고 약속하셨으나, 빵을 구워 놓지 않으셨다. 엄마는 방에서 또 꾸무시고 계셨다. 집안을 둘러보니 하루 종일 엄마는 방에 누워 계신 모양이었다. 나는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에 먹은 그릇을 씻어 놓고 간 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릇이 부엌에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아빠가 집에 오실 때까지 수잔의 집에서 놀았다. 아빠가 오신 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엄마는 시장해 하지 않으셨고 아빠는 많이 잠수하지 않으셨다. 아빠는 요즘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다.

5월 22일

어제 밤에 아빠가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빠는 엄마가 몹시 아프시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집안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빠는 곧잘 웃으시고 농담도 하셨지만 아빠가 우시는 것을 전에는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밤이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

5월 24일

수요일부터 방학이어서 기분이 좋다. 학교에 다니면서 집안 일을 하기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내가 겨우 열 살밖에 안되어서 결혼을 하려면 아직도 여러 해가 있어야 하니 기분이 좋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잔은 내가 자기하고 안논다고 나보고 거만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잔의 어머니는 아프지 않다.

아빠는 나 혼자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맛있게 잘 되었다. 그러나 아빠가 하나밖에 잠수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아빠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으셨나 보다.

5월 25일

오늘 초등학교회는 재미있었다. 헛트 자매님은 우리에게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는 “하늘의 문”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하늘의 문은 우리 집에도 열렸다. 왜냐하면 엄마가 오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고, 잠옷 대신에 치마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먹고 웃고 이야기하였다. 아빠도 직장 일을 재미있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피곤해하셨다. 나는 설거지를 하였고 아빠는

다른 행주질을 하여 그릇을 정리해 주셨다. 나는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설거이를 도와 줄 텐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면 설거이 할 그릇이 더 많아지겠지.

5월 29일

나는 그동안 일기를 쓰지 못해 마음이 안됐다. 잡초는 정원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빨리 자란다. 킴볼 대판장님은 가정을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미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매일 아빠는 해 놓고자 하는 일의 목록을 남겨 놓으신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설거이 한 다음, 엄마가 깨어 계시면 방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신다.

나는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어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잔다. 나는 곧잘 개척 시대의 소녀가 되어 보았으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초와 비누를 만들어야 했고 모닥불로 음식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가 개척자가 아닌 것이 기쁘다. 나는 잡초를 뽑고 청소하고 설거이 하는 일만으로도 피곤하다.

5월 30일

오늘 우리는 모두 주일학교에 참석하였다. 엄마가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것을 보니 무척 아름답다. 그 옷은 엄마가 지난 달에 만드신 옷이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입으신 것이었다. 엄마는 개회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주무셨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성찬식이 끝난 후에 잠시 걸으면서 내일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6월 10일

공평치 못한 것 같다. 엄마는 잠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나는 하기는 싫지만 엄마의 일을 해야 한다. 열 살짜리가 엄마 노릇을 하기엔 너무 어렵다. 나는 어느 누구의 엄마도 아니지만 아픈 일을 해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다.

6월 23일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었으나 재미있었다. 아빠와 나는 토요일에 12파운드의 딸기를 따다. 우리는 6파운드의 딸기를 씻고 꼭지를 떼어 반으로 갈라서 잼을 만들었다. 그것은 재미있는 일이어서 우리는 많이 웃었다. 아빠가 너무 크고 목소리가 낮아서 나는 아빠를 좀 무서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무서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성장한 탓이거나, 아빠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때문일게다.

여하간, 우리는 저녁 식사로 딸기 케익을 만들었고 남은 딸기는 냉동기에 넣어 두었다. 돌아오는 겨울에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엄마가 부엌으로 와서 잠시 보셨지만 도울 수는 없었다.

7월 6일

지부장님이 오늘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가슴이 찢어지셨다. 아빠가 일어나셔서 그가 받으신 축복과 가족이 받은 축복을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아빠는 안경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아빠가 자리에 앉으시자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온 몸이 따스함을 느꼈으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7월 23일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내가 만든 팬케익을 세 개나 잡수셨다. 아빠가 그렇게 시장해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헌트 자매님이 오셔서 우리는 함께 빵을 구었다. 음—! 아직도 나는 그 냄새를 말할 수 있다. 나도 엄마가 되면 집에서 그런 빵을 구어야겠다. 내 아이들도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나는 가구에 먼지를 털고 닦는 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목욕탕 청소하기가 제일 싫다. 우리 집에 수잔네 집처럼 사내 아이들이 넷이나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남자 아이들은 목욕탕 세면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밤에 아빠와 나는 번갈아 가며 엄마에게 물몬경을 읽어 드린다. 엄마는 물몬경을 읽어 드리면 좋아하신다. 나도 사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도 기분이 좋다.

아빠도 이제 내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 오늘밤 아빠는 엄마가 곧 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빠의 음성이 이상했고 아빠는 나를 안아 주셨다. 엄마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8월 8일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았고 헌트 자매님이 나의 아침을 만들어 주셨다. 간밤에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어 아빠가 엄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헌트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다. 나는 잠시 헌트 자매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8월 12일

밤에 아빠가 들어오셔서 헌트 형제님과 그 자매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을 들었다. 나는 아빠가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오시지 않으셨다.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아빠에게 갈 수가 없었다.

8월 13일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헌트 자매님이 내 방에 앉아 있었다. 자매님은 내 침대 곁에 와 앉더니 잠시 나를 안아 주셨다. 나는 자매님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지 알았다. 마침내 자매님은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말해 주셨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자매님이 부엌으로 가지자 나는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울었다.

8월 17일

나는 장례식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흰 옷을 입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평화로와 보였다. 나는 이것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였고 꿈에서 깨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잠에서 깨려고 내 몸을 꼬집기까지 하였다. 모두 가버리고 아빠하고 나만이 남았다. 정말 조용하다.

9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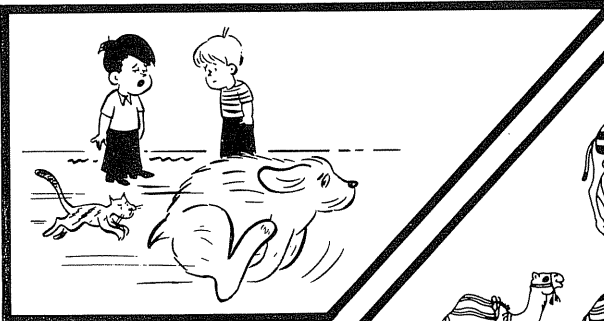
나는 아빠에게 내가 꾸는 꿈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엄마를 보았는데 엄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나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었으며 엄마의 머리에서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엄마는 내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모이게 될 것이며, 그때는 더 좋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같은 날, 아빠도 엄마 꿈을 꾸셨단다. 아빠가 내일 우리 둘이서 소풍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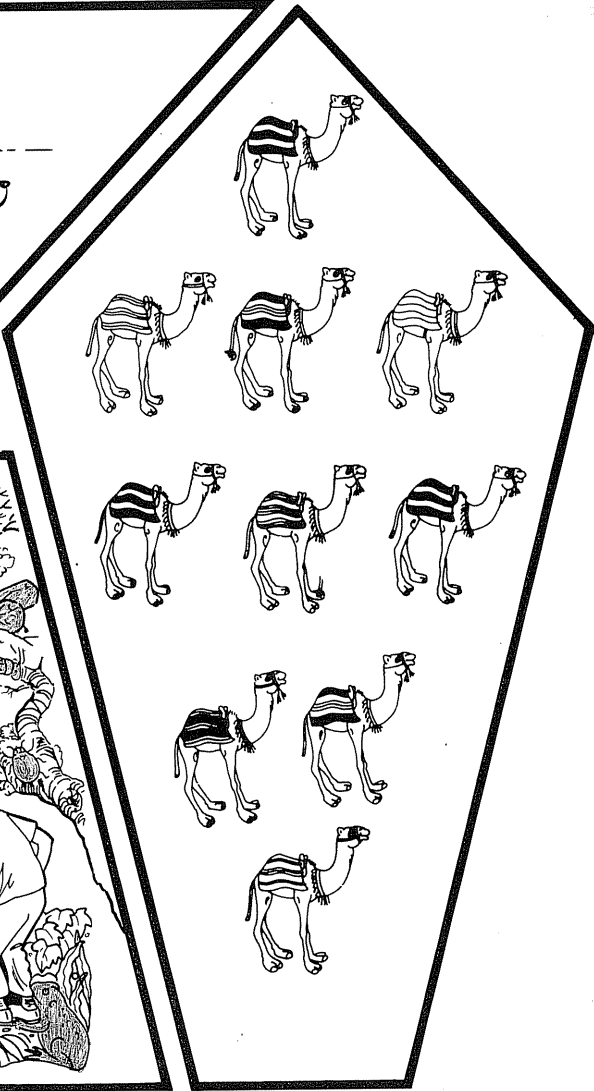
시 | □人 | □표 T 리 이 |



한 가지만 빼 놓으면
좋은 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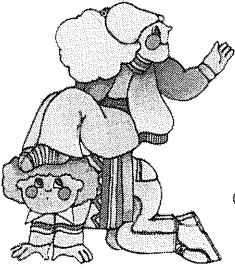
숨은 물건 찾기
소년들이 야구공, 연필, 풍뎡이, 나비, 메
뚜기, 새, 모자, 거북이, 뱀, 두꺼비, 달팽
이 그리고 쥐를 찾고 있어요. 도와 주세요.



쌍둥이 낙타
쌍둥이 낙타를 찾아서
사막 여행을 떠나세요.
로버타 엘 페어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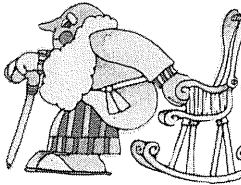


나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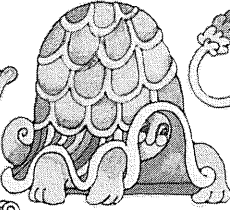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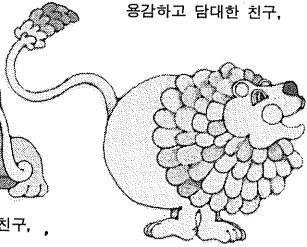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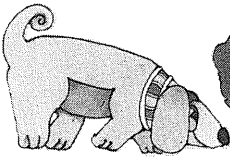
부끄럼을 많이 타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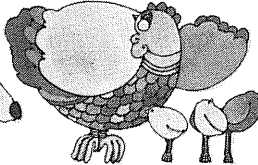
용감하고 담대한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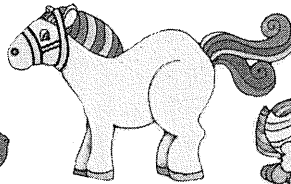
두 발 가진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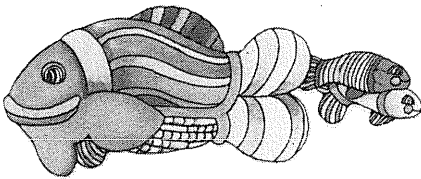
네발 가진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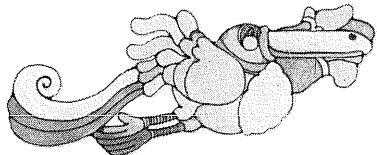
음메 하고 우는 친구



히칭거리는 친구



수영을 잘하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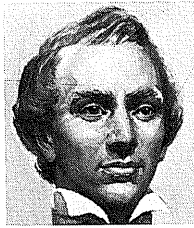


공중을 나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곳에나 나의 친구가 있으니 나는 결코 외롭지 않지요.



요셉 스미스역



흠정역 성경에 대한 개정 또는 번역이 1830년 6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은 예언자로서의 “그의 부름의 일부”로 여겨졌다. 이 사업의 주요 부분은 1833년 7월경에 완성되었으나, 그는 1844년에 그가 죽기까지 교정을 계속하며 출판을 준비했다. 그가 번역한 것을 모두 출판하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었을 것이었다. 번역의 일부는 그의 생전에 출판되었다.

이 번역 과정은 예언자에게 있어서 학습하는 경험이 되었으며, 교리와 성약의 몇몇 편들(그리고 교리와 성약에 출판되지 않은 다른 계시들)은 이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받게 되었다. (교성 76, 77, 91편) 또한 번역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지지 사항이 교리와 성약 37편 1절, 45편 60—61절, 76편 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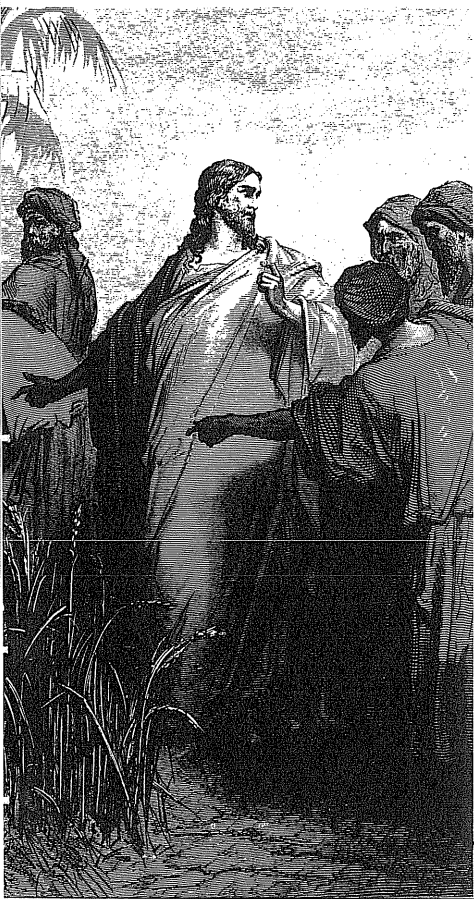
절, 90편 13절, 94편 10절, 104편 58절, 124편 89절에 주어졌다. 값진 진주에 수록되어 있는 모세서와 마태복음 24장(요셉 스미스 1서)은 요셉 스미스역에서 실제로 발췌한 기록이다. 요셉 스미스역의 많은 발췌문은 이 기사의 출처가 되는 사전이 붙어 있는 흠정역 성경의 주석에도 나와 있다. 요셉 스미스역은 어느 정도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간절하고 진귀한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돕고 있다. (니일 13, 14장 참조)

요셉 스미스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 표준 경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을 일깨워 주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귀중한 보탬이 되고 있다.

이것은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된다.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성역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

신 구약전서의 변함없는 복음

엘리스 티 라스무센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상당히 정리되지 않은 신학적 개념과 윤리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란 단순히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개발된 사회 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타당한 논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계시된 신학, 절대적인 진리와 영원한 옳고 그름을 지닌 신성한 윤리 규범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전서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조금도 논리적이거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전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나쁜 예”가 있고 쉽게 발견되는 이유는 세상에선 선한 사람과 선한 행실 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 선과 악을 솔직하게 대해 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실망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은 성경 전체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 저자들은 영웅과 악인, 백성과 왕들, 예언자와 제사장들의 악과 덕을 모두 사실 그대로 말하였다.

악이 행하여진 경우에서 저자들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나쁜 결과를 즉시로 지적해 주었다. 또한 결과와 반응이 여러 달 또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예화만을 읽는 독자들은 그와 같이 지연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학자들까지도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그 결과 그들은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창세기 34장 25—3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레위와 시므온이 폭력을 휘두른 이야기는 책임있는 사람의 반응이 그 후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예가 된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야곱의 감정과 그들이 받을 영원한 결과에 대한 예표는 후에 창세기 49장 57절에서 독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물론 사건을 기록한 저자가 폭행이나 부도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독자들 중에도 그같은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관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그릇된 추측이다. 어떤 개인의 부도덕적인 면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예언자들이 줄곧 인정해 왔다. 그와 같은 악에 대한 율법은 태초부터 알려져, 십계명에서 강조되었고, 예수께서 재강조하셨고, 현대의 예언에서도 재차 언급되었다.

또한 왕이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모세, 다윗, 그리고 후기 이스라엘의 많은 왕과 제사장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것

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지도자가 죄를 범할 때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의 원수로 크게 책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삼하 12: 14)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악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선을 옹호하는 체제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말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다.

룻의 딸들,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삼손, 아하스, 웃시야 등등 구약 전서의 뛰어난 사람들이 실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사실적이다. 모든 내용이 알려진다면 대개의 경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매사에 있어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는 것이다. (교성 130: 20 참조)

긍정적인 면에서 위대한 원리들이 구약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러한 것을 수시로 활용하고, 인용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권하셨다.

예를 들면, 사두개인이 경전을 알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막 12: 24 참조)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이 표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형식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오니이다”(마가복음 12:28-33)

이 위대한 사랑의 원리가 구약전서에 도 나와 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0장 12절과 30장 6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을 참조한다. 바울은 한 가지 원리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8-10)

갈라디아의 개종자들에게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 강조하였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갈 5:13, 14) 야고보는 구약에서 이

원리를 가리켜 “최고한 법”(약 2:8)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신약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 계명의 창시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이 계명은 신약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것이었다.

반면에 때때로 구약은 이 계명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독자들은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마 5:43-44) 어떤 사람들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때때로 말씀하신 “구전”된 것에 불과하다.

사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훈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어라”(출애굽기 23:4-5)

예수께서 친히 “내가 율법을 내려 준 자요”(니삼 15:5)라고 말하였으므로 구약전서에 복음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삭, 요셉, 이드로, 여호수아, 드보라, 룻, 보아스, 한나, 사무엘, 요나단 및 나단 등과 같이 좋은 모범을 보여 준 구약전서의 인물들도 많이 있다.

결국 경전이 증명하고 있듯이, 신약의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또는 주님이 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이사야 43 : 11, 15, 25)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49 : 26)

구속주, 구세주, 왕, 창조주라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라는 명칭 역시 중요한 것이다. 구약전서 독자들 중에는 이것을 아는 자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기 위하여 대리 명칭을 사용했다. 흔하게 사용되는 대리 명칭으로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가 있으며, “이름”이라는 뜻의 “하셈”이라는 명칭도 있었다. 구약전서에는 구세주를 상징하기 위한 다른 명칭들이 많이 있다. 재미있는 명칭은 “거룩하신 이, 축복받은 이”라는 뜻의 “하—파도쉬”와 “바룩 후”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 시대에 사용되었던 또 다른 이름은 “메시지” 또는 “말씀”의 뜻을 지닌 “메임라”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유려한 아람어로 “태초에 ‘메임라’가 있었고, ‘메임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스스로 있는 자 (요 8 : 58 ; 출 3 : 14—15 참조)이며, 스스로 있는 자(히브리어로 “에이예”)란 문법상으로 존재하는 자(히브리어 “이헤예”)와 비슷하며 그것은 다시 “여호와”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그러나 참된 확신은 성신의 간증을 지닌 자에게만 오는 것이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 : 3)

일단 우리가 것처럼 증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공통되는 사랑의 복음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의 기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신구약의 가르침을 모두 조심스럽게 상고해야 한다.

예수는 이같이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 : 34, 렘 31 : 3 ; 요일 4 : 7, 19 ; 호 11 : 1 ; 시 18 : 1—2 ; 97 : 10 ; 신 11 : 1 ; 요 14 : 15 참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하나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

하노라”(에베소서 3:14, 17-19)

라스무센 박사,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과장. 교회 성인 협회 평의회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의 기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신구약의 가르침을 모두 조심스럽게 상고해야 한다.

인 용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아름다움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구약전서에서의 공의와 자비의 율법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겸손한 사도들에게 밀밭에서 같은 율법을 가르치신다. *

요셉 스미스의 구약 인물들과의 접촉

아담



셋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를 북돋아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복음 회복의 장르를 열기 위하여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였는데, 그중에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니, 존 테일러 대관장이 말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인물이 이에 포함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담, 셋, 에녹, 예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도들뿐 아니라 이 대륙에 살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듯이 이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하였읍니다.” (설교집, 제21권, 94페이지) 교리와 성약은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및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천사”(교성 128:21)의 방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가나의 새로운 지부 회원을 위한 칩레식이 해변에서 거행되다.

나이제리아와 가나

제네트 브리감

여러 해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편지가 왔다. 그것은 교회에 관하여 알고자 하니 “거룩한 책들”을 보내 달라고 간단하고 예의 바르게 요청하는 편지였다.

그러한 편지의 발신지는 어디였겠는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제리아와 가나였다. 그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였겠는가? 교회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아프리카 기독교인이었다. 교회 책자가 마을과 소도시에서 있는 그룹 또는 개인에게 우송되자 이들 겸은 아프리카인은 선교사

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날을 간구하였다.

마침내 1978년 11월에 그러한 날이 오게 되었다. 렌델 앤 메이비 장로 부부와 에드윈 큐 캐넌 이세 장로 부부가 국제선교부의 특별 대표로서 나이제리아와 가나로 파견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 1,700여 명의 개종자들이 칩레를 받았다.

메이비 장로의 부인인 레이첼 메이비 자매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 “주님께서 미리 그 백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열성적이며 영적인 백성입니다.” 메이비 부부와 캐넌 부부

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개종의 업적을 그들이 전도 사업을 벌인 공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개종자의 생활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년 장로가 말하는 “범상치 않은 현상”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다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교회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선교사용 소책자를 몇 가지 가지고 왔다. 1950년대에 어떻게 그러한 소책자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인식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각기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나이지리아와 가나에 있는 몇몇의 흑인 그룹은 교회의 형식에 따라 그들 자신의 종교적인 조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자 문제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대표자가 파견되지 못하였다.

그룹은 작은 집회소를 짓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책자를 보고 알 수 있는 한도내에서 교회의 조직, 교리, 노래, 명칭을 따랐다. 때때로 그들은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교회 회원들과 교류를 갖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은 복음 전파 사업도 행하였다. 영적인 체험을 느꼈던 어떤 사람은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 이 거리지 거리를 다니면서……우리가 물문경과 소책자에서 읽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뿔박”을 받는가 하면 때로는 “반 그리

스도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선교사들”은 겁내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으로 맞섰고, 그날에 40명의 개종자를 얻어 주위에서 모슬렘 교인들의 선망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 사람은 보고한다. “선교사들”과 40명의 개종자들은 모여서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배웠다. 후에 그들은 “47명의 개종자를 더 얻었다.”

그와 같은 경험은 권능도 받지 않은 채 교회의 이름으로 스스로 조직한 독립된 그룹간에 흔히 보는 일이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에 있는 그룹—그들은 서로의 활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은 각기 자기 나라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 아프리카인의 헌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편지가 자주 날라 들었다.

“저는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이 위대한 회복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하여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책을 통하여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모라 언덕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물문경으로 좋은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물문경 한 권을 제게 보내 주시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순수한 물문이 되고 싶으며, 그렇기 때문에 물문에 대하여 좀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이곳 가나에서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에게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

문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집회에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등과 같은 시온의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당시 6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엠마누엘 본다가 쓴 편지였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며, 어떠한 것도 우리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안토니 오비나는 후에 흑인으로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칙례를 받았으며,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게다가 비아프라 전쟁으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1978년 8월, 브리검 영 대학 교수단의 메릴 베이트먼 장로와 캐넌 장로가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진상 조사단으로 교회에서 파견되었다.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수개월 이내에 캐넌 장로와 그의 아내 제네스 자매가 메이비 부부와 함께 특별 대표로서 서부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 두 쌍의 부부는 곧 교회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들은 이미 교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와 모르는 사람에게서 모두 따뜻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들 부부



나이지리아 아보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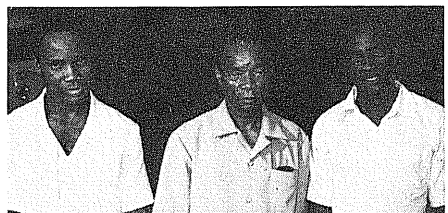
는 공공연히 복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영어로 말할 수도 있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넌 자매의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자를 원했어요. 그들은 소책자와 무엇이든 입을 거리를 몹시 갈망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천주교와 신교의 영국 선교사들이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선교부, 병원, 학교 등을 세웠는데, 그때문에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를 존중하는 전통을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라고 캐넌 자매는 덧붙였다.

메이비 장로는 교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어떻게 맞이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킴벌 대관장님의 인사를 그들에게 전하고, 구원과 영생 이외에는 아무 것

나이지리아, 아보 지부 지부장단



도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를 약속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 인종과 온갖 종류의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였으며,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였읍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교회의 교리와 실천을 보다 충분히 알게 되면서 기꺼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십자가와 장신구들을 버렸다. 그들은 시간과 금전을 모두 바쳤다.

대표자들이 칩체를 베풀었던 여러 곳에서 회원들은 아프리카인이 이미 지은 집회소를 마련하였다. 메이비 장로는 초기 보고서에서 가나의 세콘디에 지은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집회소는 회반죽한 벽, 양철 지붕, 그리고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 낡은 피아노, 몇 개의 나무로 만든 의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교회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집회소 외부의 한쪽 끝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830년 창립’이라는 낡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간판과 건물은 보기 좋게 페인트칠이 되었다.

나이제리아의 아이코트 이요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 건물은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부가 조직되던 날 218명이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 집회소는 현재 확신을 갖고 있는 회원들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이비 장로는 말한다.

그러한 건물 중에는 이미 사람들 모두 수용할 수 없으리만치 회원이 많아진 집회소들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회원들이 집회소 밖의 야외에서도 모임을 갖기도 한다.

메이비 부부와 캐넌 부부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 온 회중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가나, 세콘디 지부의 성찬식



한 번은 그들이 “교회”에서 회중들을 만났으나 그 회중들이 속해 있는 열 다섯 개의 “지부”에서 그들을 만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그 뒤를 잇는 대표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캐년 자매는 이들이 대표자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훌륭한 신앙으로 교회를 받아들여야 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들 회중은 교회 이름을 사용하여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교회의 의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신교의 오순절 예배 형식을 교회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접시 모음, 많은 오순절 할렐루야, 노래, 춤, 드림을 고무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으로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교회의 식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한편, 옛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의식은 교회 예배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캐년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는 교회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관습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들이 특별히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들이 가나, 케이프 코우스트에서 발견한 예배당에는 모로나이 천사의 실물 크기 상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경 종이 표지의 걸면에 그려진 공 위에서 서서 나팔을 입에 대고 있는 모로나이의 그림을 그곳의 어떤 조각가가 보고 본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캐년 장로는 말한다. 검정색 표지 제본의 성경과 종이 표지의 물문경이 연단에 그려져 있었다. 또한 요셉 스미스의 그림과 태버네클 합창단의 사진이 붙여져

나이지리아 아보 지부의 회원들.



있었다.

한번은 대표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은 사람을 찾기 위하여 나이제리아 오웨리 마을로부터 30.5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택시를 타고 갔다.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곧장 “정면에 ‘엘 디 에스 나이제리아 선교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작은 건물”로 차를 끌고 갔다. 캐년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와 본 것 같이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선교부”의 창설자는 후에 칩체를 받아 교회에 입교하였다.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세웠던 교회의 모형을 폐기하였다. 과거의 “목사”와 “사도”는 이제 지방부장단 또는 지부장단이 되었다. “여선지자”라는 명칭의 몇몇 여성들은 이제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다.

이들 새로운 아프리카 성도들은 비록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고 양복을 입고는 있을지라도 서구화된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대체로 서양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단순한 생활을 하였으나 그들은 청결성, 단정함 그리고 관대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현대식 고속도로가 현재 아프리카에 건설 중에 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도로는 “형편없는” 실정이다. 거리는 멀고 운전하기도 힘들거니와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 때때로 주유소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사정이 좋지 않은 통신망도 교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전화가 때때로 고장을 잘 일으키고 전보도 믿을 수가 없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편지를 보내면 여러 주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닿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문제되는 현실이나, 대표자들과 회원들은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 힘쓰고 있다. 그리고 가나와 나이제리아 국민의 다정한 성품은 다른 어려운 점들을 보상해 준다. 이들 두 부부는 킴볼 대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외국인을 이처럼 쉽게 복음 토론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책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바쁜 사람도 멈추어 서서 우리와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책자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여기를 지나다니면 그들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엔사인, 1979년 5월호, 106페이지)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나이제리아와 가나에 있는 새로운 회원을 방문하였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1979년 2월에 방문하였고,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은 1979년 4월에 방문하여 그곳 회원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하였다. 영국의 지역 대표인 존 록스 장로도 가나를 방문하였다.

서부 아프리카 성도들은 교회 본부에서 정반대편에 살고 있으며, 그들이 상호부조회와 같은 교회 프로그램을 갖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신앙은 강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오랫동안의 소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며, 그 소망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

실천하라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런던에서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나 통가의 누칼로파에서나 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나 복음은 어디에서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킴블 대관장님, 지난 여러 달 동안 저는 해외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대관장님의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남태평양 지역의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성실한 사랑과 끊임없는 충성심을 대관장님께 전합니다. 그들은 대관장님이 내년 2월에 그곳에 오셔서 종래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고 광범위한 대회를 주재하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아홉 개 지역에서 17일만에 걸쳐 44회의 대회를 가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서로

다른 표준시에 맞추기 위해 시계를 18회나 고치면서 28,000마일의 비행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걸음의 폭을 넓히자”고 성도들에게 크게 목표를 주시는 분의 일정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가 아닌 “내가 실천하는 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일정표입니다.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한 소리로 모범을 보여 줄 때는 대답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의 책상 위에서 현저하게 눈에 띄이는 표어는 “실천하라”입니다. 이 영감받은 지도자에게는 개인의 편익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주님의 편익에 맞추어 행합니다. 일에 임하는 그분의 모범은 전설적이며 뒤따르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중 제가 와이오밍주에 있는 어느 공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부 대회가 있을 것이며, 선교부장이 솔트레이크

이크시티에서 오는 순회 총관리 역원을 모시고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성찬식 모임에서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 지부 대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그 순회 총관리 역원과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였으며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새로이 부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친절하고 그의 간증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높은 부름이 과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내려져야 했던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내세울 만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이용하실 줄 압니다. 사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때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아시는 예언자가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일의 사업은 예언자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예언자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이든 부지런히 일하고 능력있는 제자들을 결실하게 필요로 하였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부지런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언자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위한

세 가지 목표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보다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보다 잘해야 합니다.

어느 위대한 교사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지 않으려는 사람이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문화가 발달되고 현대적인 교육 기술이 개발된 현 시대에서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고 매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기꺼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와 만날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언자의 부름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학교나 기술 습득을 뒤로 미루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고 개인적 관심도 저버리는 것이 과연 편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의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믿으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두 주일 전에 참석했던 남태평양의 한 역원회에서 기록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로부터 받았던 조언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누칼로파 통가 스테이크는 모든 와드나 지부에 합창대를 조직하고, 이웃 사람도 합창대에 가입하도록 권하라는 킴블 대관장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 지난달 심슨 자매와 저는 이 스테이크의 합창체에 참가하여 참으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모든 와드와 지부가 다

참가하였습니다. 어느 조그만 지부는 지부 회원 전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각 합창대마다 많은 수의 비회원이 있었습니다. 한 합창대의 최소 삼분의 일이 구도자였습니다. 모든 합창대에는 최근에 침례받은 회원들이 노래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합창에 참여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으로 단장하고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고조된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지도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의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는 합창대가 있습니까? 비회원을 참가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는 7,000여 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습니다. 이 와드나 지부의 회원 각자가 내년 12개월 동안에 한 가족을 교회에 데려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는 둘 내지 셋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다섯 명의 가족을 우리와 함께 노래부르도록 초대하여서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면 7,000개의 와드나 지부에서 1년에 35,000명의 개종자를 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한 결과로 얻는 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상속받을 후보자가 될 사람은 가정 교육이 어떠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세속적 관심 거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는 기꺼이 최선을 다하려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첫발을 내디디려는 불굴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막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구세주는 매우 간결하고 매우 아름답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현대 문명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은 좌절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복잡한 생활 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양식이 더욱 중요한 영원한 목적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얼마 전, 삼촌 자매와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낮으막한 쿤스트리트를 따라 걸다가 부두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잠깐 그곳에 멈춰 서서 저는 제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던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자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마오리 부대에게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흔드는 늙은 마오리 노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듯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부부는 한 젊은 병사가 그들에게 크게 웃음짓자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마오리 사람들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병사는 그들의 증손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가 가담하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현대적 복잡한 장비가 있는 원자 전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늙은 노부부가 젊은 용사로서 전쟁에 참가했던 지난 1800년대의 마오리

죽의 전쟁과는 너무나 틀릴 것입니다. 곧 청년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노인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약간은 냉소적으로) “카타히 카우아 파케하 타투우” 즉 이 말은 “자 이제 우리도 문명되었지요.”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진보란 무엇입니까? 확실히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경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 55 : 8 참조) 이 경전보다 더 참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진실로 참된 유일하고 간절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짧은 몇 해를 살기 위해 지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모세서 1 : 39 참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불사불멸의 첫 번째 부분은 구세주의 구속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이나 피부나, 신조나, 행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은사를 받아 살 것입니다.

영생과 승영을 얻기 위하여는 각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권의 원리를 생활에 옮겨 실천해야 합니다. 불사불멸과는 달리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각자가 영원으로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배우고 생활해야 하는 규율이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는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구세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보스톤의 한 은행가는 다음 월요일에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페루의 산속에서 조그만 농장을 가진 선량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통가의 바바우 섬에 사는 젊은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육을 그의 카누에서 합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충실히 행하는 런던의 한 젊은 회사 중역의 믿음과 다를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실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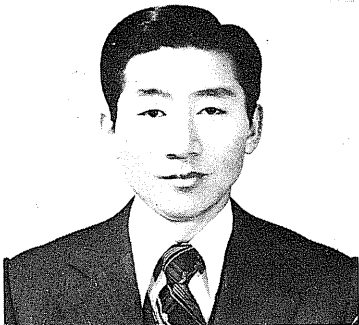
중손을 둔 그 늙은 마오리족은 그에게 밀어닥친 이른바 문명의 가치에 대해 무엇이든지 질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이 발명되고 무엇이든 자동화된 오늘날의 젓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쓰이기만 하면 유익합니다.

만약 복잡한 방법이나 자동화된 장비들을 사용하여 좀더 많은 시간 동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악의 방향으로 우리의 “결음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따르고, 살아 있는 예언자의 모범을 따를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방편

광주 스테이크 부장
박 병 규

작년 10월 26일, 돌연한 강추위 속에 서 예언자의 음성을 듣던 일이 어제 만 같은데 해가 바뀌어 8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하루 전 광주 스테이크가 탄생 될 때 분주한 일정을 무릅쓰고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셔서 광주 스테이크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이 이땅에 전해진지도 4만 세기가 넘었고, 이 기간에 우리는 6개의 스테이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긍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눈을 돌려 볼 때 이같은 외적 성장에 견줄 내적 성장을 아직 못이루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내면을 충실히 다질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도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회원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준비

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바람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 교육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감독과 정월회 회장을 대표하며 주님의 대표자로 각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표할 기회는 참으로 영화로운 시간입니다. 또한 이 부름은 성스런 것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방문받는 가정에 축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 복음 교사로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이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교성 20:47)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의 하나로 방문받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시들며, 매일매일 주와 의논하고 열렬히 기도드리며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음의 축복도 요셉 미스의 기도로 비롯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의 또 하나의 임무는 가족이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의 의무로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의 의무를 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 35~36)

행하며, 신전 사업에 참여하고, 예언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문받는 가족이 이같은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이에 따르는 축복도 받게 할 것입니다. 의무를 일깨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사랑과 인내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칭찬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마 25: 35-36) 위의 상황은 우리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실제로 수없이 당면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순천 지부의 한 형제님은 위와 유사하게 회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해서 성도의 벗을 구입해 주고, 몸이 불편한 회원에게는 약을 사주었으며, 어느 가정에는 나무를 심어 주고 때로는 남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도 하는 등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담당한 가족들은 비활동 회원일지라도 교회를 아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자신에게 베푼 사랑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형제중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40)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큰 소명감과 믿음을 갖고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방문을 받는 분들은 방문자가 누구이든 문자 그대로 주님의 대표자로 여겨야 하며, 겸허하고 정중히 맞이하며 전해지는 메시지에 경청하고 원하는 보고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얻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 10: 40-4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보다 큰 사랑과 보다 깊은 뜻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훌륭히 수행할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방문자나 방문받는 자가 모두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